

## ASCE 국제수자원공학 학술회의 참가기

최계운 (인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학술회의 발표를 마치고

8월 3일부터 7일까지 미국토목학회에서 주최하는 1998년도 국제수자원공학 학술회의가 미국 테네시주의 멤피스에서 개최되었다. 거의 매년 참가하지만 금년에는 더욱 가슴이 설레었다. 멤피스시 중앙을 관통하는 미시시피강의 위용과 미 공병단에서 자랑하고 있는 WES실험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2일 텍사스주의 달라스 공항을 거쳐 학회가 열리는 멤피스시의 Peabody호텔에 도착했다. 전통양식으로 지어진 호텔과 주변에 죽 늘어선 마차들을 통하여 테네시 특유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음악의 도시, 엘비스 프레슬리가 태어나 활동하던 무대를 자연적으로 연상케하는 모습이였다. 학회의 준비는 언제나 처럼 완벽한 듯 보였다. 학술대회는 아침 7시부터 등록장소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시작되었다. 금년에는 IMF영향인지 약 800여명만이 학회에 참석하였다. 매일 매일 발표자들을 위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는 것은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 아침식사 시간에 각 분과장이 발표자를 확인하고 본부에서는 각 분과장을 통하여 전달사항을 알려주기도 한다. 발표자나 좌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도 하고 발표시 필요한 OHP나 슬라이드 등의 준비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학술회의 참석율을 높이고 학술회의를 통한 값진 의견교환을 위하여 몇 개의 심포지엄이 함께 개최되기도 하는데 금년에는 지하수관리, 습지의 수리·수문학, 교량세굴, 하천제방보호, 하천의 회복등 5개의 심포지엄이 학술회의와 병행하여 개최되었다. 학술회의의 중간 중간마다 분과회의도 활발하게 열렸다. 개막당일 점심시간에는 USGS의 수문기술자인 Robert Hirsch가 "Partners in

Developing and Protecting Nation's Water Resources"란 제목의 짧은 연설을 통하여 수자원 관련 담당자들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8월 5일(수요일) 점심시간에는 수자원 각 분야의 공헌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상금은 참석자 또는 회원들의 기부금에 의하여 준비되었는데 금년도 시상자는 아래와 같다.

- (1) Ven Te Chow Award : Vit klemes (Flood Probabilities : Flooded with Irrelevant Algebra)
- (2) Hunter Rouse Hydraulic Engineering Lecture : Heinz G. Stefan (Stream and Lake Temperature Dynamics)
- (3) Royce J. Tipton Award : Terry A. Howell (Texas Sized Test of the ASCE ET Equation)
- (4) Walter L. Huber Research Prizes : Marcel H. Garcia



좌로부터 안상진 (충북대), 필자, 김건홍(인하대), 서병하(인하대)교수

- (5) Karl Emil Hilgard Hydraulic Prize : C. Kranenburg and J. C. Winterwerp
- (6) Arid Lands Hydraulic Engineering Award : Mostafa M. Soliman
- (7) Hydraulic Structures Medal : N. Rajaratnam
- (8) Service to the Devison Award : S. R. Abt
- (9) Best Research Paper : L. B. Mudgway, R. J. Nathan, T. A. McMahon and H. M. Malano
- (10) Best Reviewer : Rao S. Govindaraju
- (11) Best Practice Paper : M. Sophocleous, A. J. Stern and S. P. Perkins
- (12) Best Paper : T. E. Croley

지역에는 학술회의 개최장소로부터 5분 정도 떨어진 미시시피강 중류에 유람선을 띄워 참석자들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약 4시간에 걸친 선상에서의 음악, 맥주, 담소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2000년도에 우리 학회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 ICHE 2000에서도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으면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금년에는 총 35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각 부문에 대한 논문은 아래표와 같다.

구 분	분 과	논문의 편수
세 굴	16	57
제방	8	27
습지의 수리·수문학	9	26
하천회복	6	19
하수	12	38
기타	59	188
합 계	110	355

금년의 논문 특징은 엘리뇨등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하천 홍수량의 변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제방에 관한 논문이 크게 증가한 것과 하천회복에 관한 논문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하천회복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는 장소에는 참석자들이 많이 몰려 하천환경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듯하며, 유럽에서의 주요 관심사로만 알아왔던 자연형 하천등은 미국에서도 관심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쉬운 것은 본 학회에 국

내 참석자들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한국인 참석자로는 충북대학교 안상진 교수, 인하대학교 서병하, 김건홍 교수, WES의 김규환 박사와 필자뿐이었다. 필자는 "Local Scour Increment by Successive Bridge Construction in the Han River"라는 논문과 "Local Scour at Bridge Piers in the Cohesive Soil in the Yellow Sea"라는 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관심이 크게 높아진 점착성 하상에서의 세굴에 관하여 참석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내년에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주의 Seattle에서 학회가 열리게 된다. 논문발표를 위한 요지 마감일이 금년 10월 15일 이므로 많은 회원들이 논문을 준비하여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필자는 국내에서 특별한 제목이나 분야에 대하여 여러 발표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분과를 새로이 만들 수도 있다고 ASCE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학회가 끝나고 미시시피강 하류의 Grenada호수와 WES실험실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Grenada호수는 미시시피강 하류지방 홍수방지를 위하여 미 공병단에서 만든 호수인데 호수라기 보다는 바다라고 표현할 만한 엄청난 호수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들의 노력이 어떠한가를 짐작하고도 남을 만 하였다. 주위의 경관, 가족들의 소풍장소, 완벽한 댐 시설물 등이 잘 어우러져 그림과 같은 모습이었다. 미시시피주의 Vicksburg에 위치하고 있는 WES(Waterways Experiment Station)는 실험실과 연구실을 하루 종일 돌아보아도 다 볼 수 없을 만큼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각종 모델 실험이 수행되고 컴퓨터 모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것으로는 대부분의 연구가 USDA와 미공병단, USGS, USDA와 미공병단 등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환경부분이 점차 확대되는 느낌을 받았다. 10일 남짓한 여행이었지만 많은 느낌이 남는다. 같이 수학하였던 동료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작년에 느꼈던 학문의 영역과 금년에 느끼는 영역이 다르고 깊이의 변화도 있었다. 현장을 통한 확인도 또 하나의 수확으로 남는다. 내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지에 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